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음 11월 3일) 제195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간접고용 용역근로자 정규직으로 전환 확정

### 도,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전국 시도 중 최초로 노·사·전문가 협의 거쳐 처우개선 등 최종 합의

전북도는 공공부문 전북도 시설용역 간접근로자의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 추진을 위해 구성된 이해당사자 근로자대표단 등 노, 사, 전문가 협의기구(위원장 이호근교수)와 3차례 걸친 열띤 논쟁 끝에 19일, 도청 청사에서 전환대상자 69명과 전환 시기, 처우개선 등 7개 항목에 대한 최종 합의를 마쳤다.

이로 인해 전북도는 2017년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전국 시도 중 최초로 간접고용 근로자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주요 협의내용은 도청사 전환대상자 등 3개 기관의 청소와 시설직종 71명에 대해 4개월 근무자 2명을 제외한 69명을 전환대상자로 선정, 전환시기와, 정년 및 고령자 처우, 임금체계, 호봉제, 직종구분, 채용방식 등

7개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전환 시기와 정년, 고령자 처우개선 부분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도와 협의기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정규직 전환의 근본 취지임을 감안, 전환시기에 대해 1차적으로 2017년 12월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공무원교육원과 119안전체험관을 우선 시행, 2차로 2019년 12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도청사는 용역업체와의 계약관계 등 도의 입장을 감안 계약만료 시 실시하되 관계부서는 전환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등 노력할 것을 상호 합의했다.

정년은 정규직 전환자의 정년 60세와 고령친화직종인 청소직종은 60세 정년 이후 65세까지 고용보장 및 65세 이상 고령자는 1년간 근무연장했다.

임금체계는 도 기간제 임금수준으로 하며 호봉제는 현 공무원 채용시

적용지침(유사경력)을 적용하되 현 정부가 준비 중인 직무급제 적용 시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전북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합의결과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노·노 갈등이나 근로자들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노동계와 근로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질적 수혜 당사자인 근로자와 상생하기 위한 역사사지의 마음이 서로 통했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졌다"며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앞으로 전환대상자 69명중 119안전체험관 및 공무원교육원 근무자 17명은 2018년 1월 1일부터, 도청사 근무자 52명은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끝나는 2020년 1월 1일 또는 용역업체와 합의 시 앞당겨 전환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도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전환을 위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2017년 12월 말까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출자,출연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화이팅!”... 청년상상놀이터 개소** 전주시는 19일 기린대로에 위치한 전주 청년상상놀이터에서 청년상상놀이터 개소식 및 청년실업 사업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총 3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상상놀이터는 전주지역 최초의 청년창업과 창작, 창업지원 전용공간으로, 상상놀이 바(Bar)와 창업코어스페이스, 공동창업지원실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어, 청년경제 생태계 구축과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민아파트 임대료 인상 법 개정 ‘총력’

### 전주시, 임차인 권리보호 위해 타 지자체와 공동 연대 강화 부영주택 ‘불기소 처분’ 서 처분 이유 파악해 항고키로

전주시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강력히 나서기로 했다.

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법률상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는데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국회, 회를 상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꾸준히 촉구하는 한편, 곧 검찰의 부영주택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법률개정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할 때 사후에 신고하는 현행 제도를 임대료 인상 1개월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연간 5%까지 허용된 임대료 인상을 현실에 맞게 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최인호 의원이 입법 발의한 임대료 인상 시 사후신고제가 아닌 사전신고제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다.

또한, 정동영 의원이 임대료 인상을 상한선 5%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2.5%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으로, 내년 1월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교통부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료 증액기준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그 기준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조정권고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발맞춰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계법을 개정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덕진구청이 (주)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 고발조치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유가 관계법령의 불합리한 기준 때문인 것으로 보고, ‘민관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 정치권 등과 지속적인 공조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또 하자 발생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제주시와 화성시 등 타 지자체와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저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부영주택이 소재한 전국 22개 지자체와 임대주택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시·군·구 연대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검찰의 부영주택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서는 불기소이유를 명확히 파악해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검찰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료 인상을 상한선을 주 거주불가자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해 연 5%로 정하고 있지만, 부영주택의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임대료를 5%로 인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김민근 기자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방안 제시

###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핑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집적한 사회혁신의 거점공간으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방안이 제시됐다.

전북연구원은 19일 정책브리핑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방안’을 통해 기본개념, 핵심내용, 추진방안 등을 설명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공동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경제활동’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업기반이 취약하고 기술역량이 부족하여 개별조직으로는 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어

렵기 때문에 ‘조직지원, 기술지원’을 집적한 혁신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

황영모 박사(농업농촌식품연구부 연구위원)는 ‘사회적경제 조직(주체)을 네트워크(구조)로 확장하고 혁신을 이뤄낼 공간과 인프라 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혁신타운의 조성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은 전북도가 19대 대선공약으로 제안하였고, 올 상반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6.14)와 일자리위원회(6.29)에서 전북도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논의된 바 있다.

전북도 사회적경제 조직은 1,064개 조직에 2만6000여개 일자리를 만들고 연간 사업비는 1조2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김진성 기자

## 고군산카훼리호 21일 취항식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고군산 군도를 내년부터 운항할 ‘고군산카훼리호’의 취항식을 오는 21일 군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연다.

19일 군산 해수청에 따르면 신조 여객선 고군산카훼리호는 지난 1998년부터 운항한 장자훼리호를 대체해 투입될 예정으로 국고 25억원이 투입된 217급 차도선이다.

18개월의 설계 및 제작 기간을 거쳐 진수됐으며 여객 178명, 승용차 11대를 적재할 수 있도록 건조됐다.

고군산 연륙교가 장자도까지 개통에 따라 고군산카훼리호는 장자도~말도로 항로를 운항할 계획으로 운항시간은 45분이다.

홍상표 군산해수청장은 “신조 여객선의 취항으로 도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군산=김광관 기자

국립승마센터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